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찬양해요 찬송가 527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2:9-16

-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 이해하기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곳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로서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한 지역 체류 기간으로는 가장 오래, 18개월이나 머무르면서 사역한 곳입니다. 그곳은 철학과 우상숭배가 대립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신앙의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복음을 해석하여 혼란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은 어떤 교사가 심오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며 분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신령한 것들, 즉 구원의 문제, 천국에서 누릴 미래의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 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 (1)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시는 분 (10절)
 - (2) 하나님의 을 아시는 분 (11절)
 -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12절)
- ②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요 (9-10절)?
- ③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요 (12절)?
- ④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설명하며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지혜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나요?
- 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